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평화세미나** : 평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평화세미나가 오늘 오후 1: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폐제기도회** : 이번 주 수요일저녁에 폐제 찬양과 기도 모임이 열립니다.

**신앙실천** :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여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간을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삼하 5:1-5 / 시 48	2부	신 16:9-12
예배	고후 12:2-10 / 막 6:1-13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성가대
다음 주 식당봉사 : 박영신 조순덕 허명선 김정미 이은경 전정현 김정주 김종락
오늘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5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7. 사랑의 하나님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인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속히 병의 기운을 소멸시켜주시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와 함께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지나 온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가야할 곳을 고요히 내다보며, 주님과 함께 남은 반년의 시간도 지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고후5:17 ..... 인도자

♣ 교 독 문 ..... 102. 나라 사랑(4)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대표기도 ..... 장영숙전도사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22.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다 함께

♣ 성경봉독 .....  
 I. 삼하1:17-27 시130 막5:21-43 ..... 박숙영 선생  
 II. 행 15:6-11 ..... 김문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 다 함께

찬 양 ..... 성령이여 내게 임하옵소서 ..... 참빛찬양대

말 씬 .....  
 I. 우리는 슬픔과 함께 간다 ..... 신진식전도사  
 II.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 김기석 목 사

거듭기도 ..... 다 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재원 권미정 권혁순 박혜경 김명하 오형일 김순자 김승현 김수진 김윤수  
 박상호 김준호 곽해자 김중현 성귀옥 김태영 김혜영a박기영 박영희 박용철  
 김윤정 박종철 임옥기 박창운 허정윤 박현조 백성래 변재민 이소혜 서정순  
 성지현 심화섭 정영란 안세진 오미숙 오진훈 노순옥 우순덕 윤미경 윤정덕  
 구성실 이경남 이봉옥 이유선 이재삼 전정현 이종현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장근성 박희순 장아름 장원호 박성희 정현숙 주은경 최미자 최옥자 최 현  
 한성건 정지혜 허명선 허호범 박성실 현 진 홍순복

### 감사헌금

권미정 권혁래 김성수 박유경 김재흥 최희영 김태정 김행자 박병구 김인순  
 박창운 허정윤 박철국 이숙자 안정준 오진훈 노순옥 이영숙 장은주 이은혜  
 장원호 박성희 조현권 박아영 한상의 정영선 허신열 강금연 무명

### 생일감사헌금

조순덕

### 녹색꿈헌금

김용진 박효선 박영희 우순덕 윤미경 윤수진 정수복 장미란 주현철 강미선 무명10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쉽	쉽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시온	권미숙	박미영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 마음으로 읽는 글

## 휴전선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번은 천둥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짙짙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한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번은 천둥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홍지희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려는 과오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세상의 그릇된 차별과 분리의 장벽을 허물며 사십시오.	
다 함께:	아멘. 나만 옳다는 생각 속에 수많은 장벽을 쌓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나에게 값없이 찾아온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작용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넓고 깊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평화세미나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 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기석 목사	서효진 선생 강세기 집사

6	영접위원	한완식 조문규 황현성 진정숙 이오복 김현주
	헌금위원	박홍재 유경순

## 나무 심는 사람들의 에너지 반성 공방 만들기

일 년 중 낮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를 지나 산과 들은 짙은 초록으로, 과일과 곡식, 그리고 아이들은 쑥쑥 커져만 가는 계절,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면 전력사용이 늘어나게 될 텐데 때마침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하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에어컨을 틀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에너지 소비의 증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더욱 심화시켜 지구 곳곳에서 더 큰 재난과 재해를 불러옵니다. 이는 마치 나비효과와도 같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어느 한 나라에 갇혀 있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재이기 때문에 나의 작은 행동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최근 우리나라도 가뭄이 심각하지만, 올 해 몽골은 유난히 가뭄이 심하다고 합니다. 몽골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아주 추운 나라로 겨우내 내린 눈이 봄이 되면 땅 속으로 녹아들어 지하수가 되고, 여름 내내 동식물들은 그 지하수로부터 물, 즉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전처럼 눈이 충분히 오지 않자 지하수위가 낮아져 물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물에서 물을 구하기 힘들고, 동물들이 마실 호수의 물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몽골 울란바타르 서쪽 190km 지점에 ‘바양누르’라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청과교회가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2009년부터 청과교회가 후원한 ‘은총의 숲’입니다. 2009년에 심은 키 60cm의 깡마른 묘목들은 어느새 2m가 훌쩍 넘는 7년생 튼튼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때 즈음이면 은총의 숲 포플러 나뭇잎들이 뜨거운 햇살에 반짝이며 초원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온 몸을 흔들며 푸른 노래를 부릅니다. ‘바양누르’의 ‘바양’은 ‘많다’는 뜻이고, ‘누르’는 호수를 뜻합니다. 즉, 이 마을은 호수가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올 해 바양누르의 호수는 바다

을 드러낼 만큼 말랐고, 은총의 숲을 지켜줄 우물에서도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나무에게 충분한 물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생명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희망을 심는 일을 위해 그곳에 생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그 생명이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작은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에너지 소비와 기후변화의 심화로 은총의 숲의 생명들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니 타들어가는 나뭇잎만큼이나 마음도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처음 사막에 생명을 심었던 그 간절할 마음으로 생명을 지켜나가는 일에도 우리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잠깐 동안의 나의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에너지를 더 쓰기보다 우리 모두가 좀 더 길게 시원한 지구를 누릴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한 22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 방에 특별한 공방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름 하여 ‘에너지 반성 공방’.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 청년은 높은 수준의 기술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자연과 사람을 도구화 하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영성해 보이더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에너지 반성 공방’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의 취미는 나무타기입니다. 나무를 타고 오르면서 나무를 껴안기도 하고, 나무의 소리도 듣는다고 합니다. 나무에 깃들여 사는 작은 동물들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과, 지구와 평화하는 법을 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올 여름에는 이 청년처럼 내 방, 내 사무실을 ‘에너지 반성 공방’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처음 사막에 나무를 심으며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품었던 것처럼, 나만의 ‘에너지 반성 공방’을 통해 다시 한 번 나무를 심어보는 여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